

20세기 초 독일 철학계를 지배하던 것은 ㉠신칸트학파였다. 당시 신칸트학파는 헤겔학파의 몰락과 실증과학의 눈부신 성장으로 인해 자신의 명성을 상실하였던 형이상학에게 '칸트의 복귀'를 통해 다시금 학문적 본질을 회복시켜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시각에서 볼 때 신칸트학파는 하이데거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의 근본적 사태인 존재물음을 놓치고 있었다. 즉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도, 비록 은닉된 채로나마, 여하튼 은밀히 전개되고 있던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새로이 부활한 형이상학 안에서는 망각되고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망각은 비단 신칸트학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형이상학이 걸머진 운명이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형이상학은 철학을 형이상학, 자연학, 윤리학, 논리학, 인식론 등으로 분과화한 뒤 그렇게 분과화된 한 영역으로서의 형이상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말하는 형이상학은 그러한 분과화와는 무관하게 서구 철학 전체를 철저히 지탱해 왔던, 이제까지 우리가 전수받은 독특한 존재이해의 영역을 가리킨다. 돌아보면, 전통적 형이상학의 역사 속에서는 실로 다양한 존재개념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있음"과 "임", 그러니까 존재사실과 무엇존재, 즉 중세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현존과 본질은 물론이거니와, 진리존재, 가능존재, 현실존재, 필연존재 등 서로간 차별적인 존재개념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다양한 존재개념들은, 우리가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받아들이고 난 이후, 즉 존재자가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인 한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의 존재함을 구성하는 개념일 뿐, 하이데거가 거론하는 존재, 즉 존재자를 비로소 존재자로서 만날 수 있는 선술어적 조건으로서의 존재와는 구별된다. 그래서 후기 하이데거는 자신이 거론하는 존재와 구별되는 형이상학적 존재개념을 존재자성(Seiendheit)이라고 명명하여 차별화하기도 한다.

하이데거가 거론하는 존재는 형이상학적 존재개념들이 자라 나올 근본적 원천이 된다. 형이상학적 존재개념들은 하이데거가 거론하는 존재의 다양한 파생태이다. 이러한 존재의 파생태를 하이데거는 존재자성이라 명명할 것이다. 그러나 형이상학은 존재자성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다. 형이상학은, 은밀하게 전개되고 있는 존재이해의 사건을 망각한 채, 존재자를 향한 시각과 존재자에 입각한 시각으로부터만 존재를 사유한다. 그러기에 형이상학은 존재자성의 구조적 다양성을 포착하고 그것을 존재범주로 개념화할 뿐, 존재자성이 비롯된 근원적 영역에 대해서는, 즉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물음도 던지지 못한다. 형이상학적 물음은 이 물음에 선행하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형이상학의 주도적 물음은 "존재자란 무엇인가?"로 규정된다. 형이상학의 주도적 물음은 존재를 존재자성의 차원에서만 해석한 뒤 존재자의

생성원인을 최고의 존재자로 소급하여 해명함으로써 우리가 존재물음에 이를 최소한의 통로마저 봉쇄한다.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신칸트학파는 존재자성의 의미로 존재를 정의했다.
- ② 하이데거가 말하는 형이상학은 차별적인 존재개념에 의해 정의된다.
- ③ 하이데거의 존재는 '현존' '본질'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근본적 원천이다.
- ④ 칸트의 철학은 선술어적 조건으로서의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 ⑤ 존재 자성은 존재의 근원적 영역을 본질적 물음을 통하여 접근한다.

2. 다음중 하이데거의 존재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은?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ㄱ. 형이상학적 존재개념은 하이데거가 거론하는 존재의 일부이다.</li> <li>ㄴ. 진리존재는 하이데거의 존재가 접근하려는 본질적 의미이다.</li> <li>ㄷ. 존재물음은 하이데거가 말하고자하는 철학의 근본적 사태이다.</li> <li>ㄹ. 형이상학은 존재자성의 근원적 물음에 대하여 존재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한다.</li> </ul>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 윗글을 바탕으로, ㉠의 입장에서 ㉡의 입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이상학적 존재물음은 존재의 근원적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다.
- ②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만날 수 없는 조건이다.
- ③ 신칸트학파의 존재물음은 우리의 존재물음에 대한 과정을 봉쇄하였다.
- ④ 전통적 형이상학의 존재개념은 존재하는 것의 존재를 구성하는 개념이다.
- ⑤ '존재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존재물음으로서 명시된 물음이다.